

2019년 5월 7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중국 협상단 방미 보도로 낙폭 축소 미 언론 “중국 협상단 이번 주 미국 방문 할 것” 이라고 보도

### 무역분쟁 관련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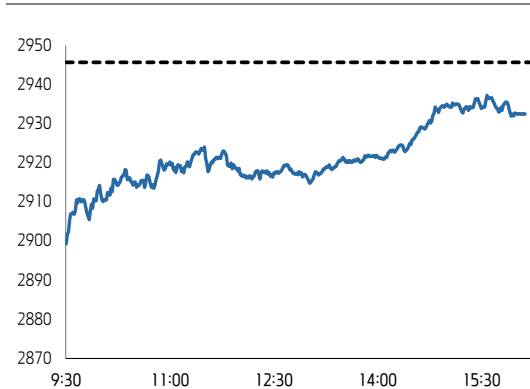
미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 출발. 특히 반도체 및 애플 등이 하락을 주도. 그러나 시장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협상 전술일 뿐 완전 철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발 매수세 유입. 더불어 장 후반 중국 협상단이 이번 주 미국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낙폭 축소 마감(다우 -0.25%, 나스닥 -0.50%, S&P500 -0.45%, 러셀 2000 +0.0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 중국 추가 관세 가능성을 언급. 지난 주말까지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던 점을 감안 시장은 충격을 받음. 여기에 6 일(월)에도 트럼프는 “매년 5 천억 달러 손실을 보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이어가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을 더욱 높임. 더불어 중국 언론들도 이번 주 워싱턴에서 있을 협상에 중국 대표단이 파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부각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류허 부총리등 중국 대표단이 참석을 준비중이라고 발표. 시장 우려를 일부 완화.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 시장 일부에서는 출국 일정을 9 일로 미루거나, 방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예정된 출국 일정이 6 일이었던 점을 감안 7 일까지 출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이런 가운데 장 후반 중국 협상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협상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며 하락폭 축소. 시장에서는 협상 타결이 되든 되지 않든 일단 중국 협상단의 방미는 중국 정부의 협상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시장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높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96.32	-0.74	홍콩항셱	29,209.82	-2.90
KOSDAQ	761.82	+0.19	영국	7,380.64	휴장
DOW	26,438.48	-0.25	독일	12,286.88	-1.01
NASDAQ	8,123.29	-0.50	프랑스	5,483.52	-1.18
S&P 500	2,932.47	-0.45	스페인	9,331.00	-0.84
상하이종합	2,906.46	-5.58	그리스	754.20	-2.60
일본	22,258.73	휴장	이탈리아	21,409.29	-1.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반도체 업종 부진

마이크론(-2.77%), 퀄컴(-1.16%), NVIDIA(-1.73%), AMAT(-1.93%) 등 반도체 관련주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격화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더불어 애플(-1.54%)은 물론 스카이웍(-1.23%), 브로드컴(-1.31%), 큐로브(-1.13%) 등 부품주도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했다. 한편, 나이키(-2.49%), GM(-1.83%) 등과 보잉(-1.29%), 캐터필라(-1.65%), 3M(-1.18%) 등도 동반 하락했다. JP모건(-0.89%), BOA(-0.78%), 씨티그룹(-0.37%)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반면, 옥시덴탈 페트리움(+1.42%)이 제시한 인수합병 조건을 아나다르코 페트리움(+3.81%)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회사 모두 상승 했다. 더불어 셰브론(+0.96%)도 비록 인수합병에는 실패할 수 있으나, 비용 감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동반 상승 했다. 유나이티드헬스(+3.69%)는 CEO의 주식 매입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95%	대형 가치주 ETF(IVE)	-0.46%
에너지섹터 ETF(OIH)	-0.18%	중형 가치주 ETF(IWS)	-0.43%
소매업체 ETF(XRT)	-0.74%	소형 가치주 ETF(IWN)	+0.03%
금융섹터 ETF(XLF)	-0.68%	대형 성장주 ETF(VUG)	-0.41%
기술섹터 ETF(XLK)	-0.77%	중형 성장주 ETF(IWP)	-0.2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69%	소형 성장주 ETF(IWO)	+0.19%
인터넷업체 ETF(FDN)	-0.44%	배당주 ETF(DVY)	-0.41%
리츠업체 ETF(XLRE)	-0.41%	신흥국 고배당 ETF(DEM)	-1.43%
주택건설업체 ETF(XHB)	-0.77%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28%
바이오섹터 ETF(IBB)	+0.85%	미국 국채 ETF(IEF)	+0.26%
헬스케어 ETF(XLV)	+0.51%	하이일드 ETF(JNK)	+0.03%
곡물 ETF(DBA)	-1.00%	물가연동채 ETF(TIP)	+0.15%
반도체 ETF(SMH)	-1.60%	Long/short ETF(BTAL)	+0.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4.19	-0.07%	-3.08%	-5.25%
소재	349.89	-1.38%	-1.91%	-3.35%
산업재	653.88	-0.96%	-0.12%	+0.73%
경기소비재	948.21	-0.64%	-0.61%	+1.93%
필수소비재	589.48	-0.16%	+0.52%	+2.68%
헬스케어	1,049.13	+0.58%	+2.07%	-1.52%
금융	462.42	-0.67%	-0.39%	+4.76%
IT	1,372.25	-0.82%	-0.48%	+3.00%
커뮤니케이션	167.14	-0.19%	-2.76%	+2.96%
유틸리티	293.76	-0.64%	+0.31%	-0.32%
부동산	224.01	-0.43%	+1.61%	-1.0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제한적인 조정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1.74% MSCI 신흥 지수 ETF 는 2.06% 하락 했다. 야간선물은 휴장인 가운데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68.1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글로벌 증시는 극과 극을 오가는 변동성이 컸다.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워렌 버핏의 아마존 매수에 힘입어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했다. 더불어 견고한 고용보고서 결과 및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한편, 주말에는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었다. 이 결과 전일 중국 증시는 5.58% 급락 하는 등 변동성이 컸다. 특히 중국 정부가 트럼프의 경고에 반발하며 협상단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낙폭이 더욱 확대 되었다.

그러나 중국 증시 마감 후 중국 외교부는 협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더불어 미 증시 후반 미국 언론들은 중국 협상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 했다. 이에 힘입어 미 증시는 낙폭이 축소되는 등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협상 타결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는 또 하나 있다. 미국과 이란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다. 지난 주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이란은 이에 반발해 연일 대미 강경 발언을 하고 있다. 실제 이란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러한 중동 리스크는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 올 수 있어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유로존 소매판매 개선

유로존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는 전월(-0.3) 보다 개선된 5.3 으로 발표되었다.

유로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0%를 기록해 예상치(mom -0.1%)를 상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9% 증가 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전환 성공

국제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불거지며 하락 출발 했다. 그러나 장중 중국 대표단이 예정대로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더불어 지난 주말 미국이 이란과의 마찰을 감안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 였다. 향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따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달러화는 장중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장중 중국 협상단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폭이 축소되며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유로존 소매판매가 개선되자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하는 등 여타 환율도 변화를 보였다. 엔화는 미-중, 미-이란 불확실성이 불거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제금리는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한편, 미국이 중동에 항모 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다고 발표하는 등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장 후반 중국 협상단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낙폭이 축소되었다.

금은 미-중, 미-이란 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9%, 철근은 0.2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2.25	+0.50	-1.97	Dollar Index	97.528	+0.01	-0.34
브렌트유	71.24	+0.55	-0.42	EUR/USD	1.1202	+0.04	+0.14
금	1,283.80	+0.20	+0.18	USD/JPY	110.86	-0.22	-0.71
은	14.927	-0.34	-0.04	GBP/USD	1.3097	-0.58	+1.24
알루미늄	휴장			USD/CHF	1.0177	+0.11	-0.20
전기동	휴장			AUD/USD	0.6997	-0.30	-0.84
아연	휴장			USD/CAD	1.3443	+0.17	-0.11
옥수수	364.25	-1.75	+0.69	USD/BRL	3.9591	+0.52	+0.69
밀	437.25	-0.17	+0.46	USD/CNH	6.7724	+0.55	+0.50
대두	830.25	-1.42	-3.54	USD/KRW	1170.00	+0.37	+0.82
커피	90.15	-0.50	-2.70	USD/KRW NDF1M	1168.12	+0.42	+0.82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498	-2.70	-2.72	스페인	0.980	-0.10	-3.00
한국	1.902	+1.20	+2.50	포르투갈	1.116	0.00	-0.50
일본	-0.040	0.00	0.00	그리스	3.333	-0.10	+4.40
독일	0.006	-1.90	+0.30	이탈리아	2.577	+1.80	-0.70